

호텔, 예술과 디자인을 입다



임충섭 대표



지역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A.C.C디자인호텔 1층 카페. 31일까지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한화원 작가의 '사유의 침잠'이 진행된다.

개관 한달 맞은 광주 금남로 'A.C.C 디자인호텔'

독특한 외관 등 입소문

카페, 갤러리 공간 활용

매월 한차례 지역작가 초대전

31일까지 한화원 개인전

금요일 10층 라운지 오픈

연주회·미술품 경매 등 계획

“호텔은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금 시대는 문화적 면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중심지 동구에 자리한 만큼 예술과 디자인이 어우러진 상업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2월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문을 연 A.C.C디자인호텔은 1층 로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그림이 전시된 분위기 있는 카페로 지역민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오픈 한달을 맞은 현재, 전체 객실 76개중 하루 평균 50여 객실이 찰 정도로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1일 호텔 로비에서 만난 임충섭(47) 대표이사는 호텔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충장로는 저를 포함한 광주시민 모두 추억 한두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생겼음에도 충장으로 일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워 호텔을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A.C.C디자인호텔은 문화전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하지만 위치가 전당 인근이니가 예술(Art), 문화(Culture), 창조(Creation)를 뜻하는 말로 이름을 지어서 문화적 느낌이 나도록 했어요. 이를 덕분인지 문화전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 타지역 방문객들이 숙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약자 ‘ACC’는 아시아 컬처 센터(Asia Culture Center)다.

임 대표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지역 예술가 지원이다. 카페를 갤러리 장소로 활용해 도록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 작가의 기획을 맡아 매달 한차례씩 지역 작가 초대전을 연다.

임 대표는 “호텔을 예술적인 모습으로 꾸밀 방안을 생각하던 중 우연히 카페에 들른 정선 작가를 만났다”며 “정선 작가가 카페를 보고 ‘전시장소로 적당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 지역작가 초대전을 생각해 봤다”고 설명했다.

개관전은 ‘사유의 침잠(沈潛)’을 주제로 한화원 작가 초대개인전이 3월31일까지 열린다. 10㎡ 규모 로비 옆 자투리 공간에는 5점을 배치했다. 2인용 테이블을 놔둬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가지고 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다.

프론트를 지나 카페에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인 전시공간이다. 8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330㎡ 규모 카페 벽을 따라 다양한 색채를 지닌 작품들이 보인다.

흑백톤인 ‘창백한 날의 일기’를 시작으로 평범한 건물 모습을 통해 감수성을 자극하는 ‘푸른벽’, 유희를 활용한 수목표현

이 엿보이는 ‘그대가 꽃인줄 모르코’ 등이 걸려 있다. 또 200호 크기 ‘세계적 풍경’을 비롯해 볼 정취에 맞는 신작 ‘필레꽃’, ‘스며든다, 녹아들다. 나는 어디에’가 내부 풍경을 화사하게 만든다.

한화원 작가는 “여느 갤러리 카페는 그림과 분위기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A.C.C호텔 카페는 조명이나 벽 색깔 등이 전시하기에 알맞다”며 “특히 공간이 넓어 대작을 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 전시도 공간에 맞춰 100호 이상 대작 위주로 작품을 출품했다”고 말했다.

또 입구에는 김영재 작가가 만든 분수작품 ‘섬’을 설치해 방문객들을 맞고, 로비에 여러장의 유리를 겹쳐 무한한 세상을 표현한 인테리어 작품으로 꾸몄다. 천장은 거울처럼 사물이 비치는 소재를 사용해 조명을 작품처럼 보이도록 의도했다.

임 대표는 앞으로 카페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는 ‘미술품 경매’다. 지역 작가 뿐 아니라 세계적 대가 작품을 유치해 광주로 미술애호가들의 발길을 이끈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을 위해 아와 수업 장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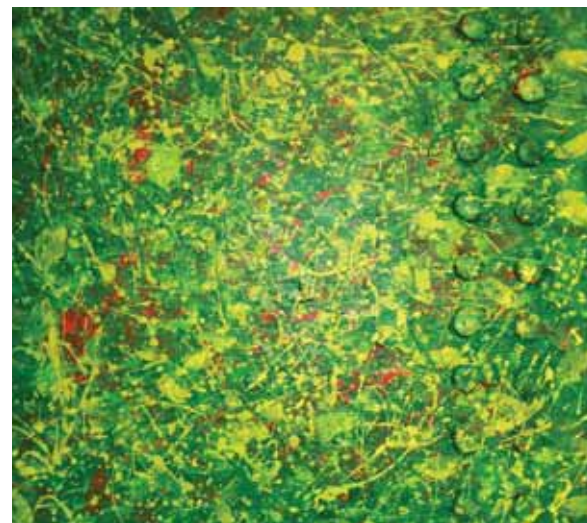
무등산이 보이는 10층 라운지 바에서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한켠에 마련된 아와 수영장을 활용한 ‘풀(Pool)파티’도 여는 등 문화예술행사를 꾸준히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임 대표는 “호텔이 자리잡는대로 지역 작가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하는 예술인들을 도울 생각이다”며 “상업시설이 예술과 만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062-234-80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 미술인모임 ‘드로잉회’ 회원전

29일까지

M갤러리



▶채종태 작
‘Spring Collection’

지역 미술인모임 드로잉회(채종태)가 23일부터 29일까지 세계 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에서 32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9명이 참여해 지난 1년간의 결과물 3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채종태 회장은 추상화 ‘Spring Collection’을 출품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에 아크릴물감을 뿌리는 기법으로 봄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강성희 부회장이 정감 어린 시골풍경을 그린 유화 ‘추억이 있는 그곳’은 추억

을 상기시킨다.

김용근 회원은 자화상 ‘아직 할일이 많다’를 통해 작업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굳은 표정의 얼굴을 그렸다.

한경수 회원은 배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완도항’을, 이승자 회원은 인상주의 화풍의 ‘남해’ 작품을 전시한다.

채 회장은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현대미술을 통해 소통하며 지역민과 거리를 좁히는 자리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0072. /김용희기자 kimyh@

여수 예술마루

26일까지

‘강종래전’



▶‘설화’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올해 첫 기획 전시로 중견작가 초대전 ‘강종래전-내 마음의 풍경을 그리다’를 26일까지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발상과 전환 50년’을 주제로, 강 작가의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작 ‘설화’를 비롯해 최근작 ‘해변’까지 50년 화업을 담은 작품 192점을 전시한다.

마치 깨진 유리를 맞춰놓은 듯한 추상화 ‘설화’에서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 의지가 느껴진다. 화면 전체적으로 갈색톤을 유지하며 담담하

게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적 묘사가 돋보이는 ‘명석이 있는 해변’, 각종 해양생물이 얹혀있는 ‘여류들의 만찬’, 초현실화 ‘생의 축제’ 등 다양한 기법을 만날 수 있다.

강씨는 대한민국무궁화대상, 2001년 올해의 화가상, 자랑스런 미술인상, 전남예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여수 예총회장을 역임했다. 국내 최초 청와대 사람채 초대전을 가졌고 현재 여수에서 송암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관람료 3000원. 문의 1544-766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디자인적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호텔 로비에 설치한 인테리어 작품.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Hye Eun Lee
2017 Dinner Show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